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hildren's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in mother-child interaction setting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성균관대학교 아동학
전임강사 송 하 나
교 수 최 경 숙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

Full-time lecturer : Hana Song

Professor : Kyoungsook Choi

목 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ixty-five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in a lab setting which included 5 free play and 5 task episodes. The children's and mothers' behaviors during these episodes were videotaped and rated by two coders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bility to others, ability to regulate frustration, compliance, and autonomy. Intercoder reliability between the two coders for each behavioral category ranged from .84 to .99.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positive expressiveness, indicating that children with higher expressiveness were more sociable to others and less frustrated in a stressful situation.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also found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negative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compliance and autonomy.

In particular, the consistency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levels of negative expressivenes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ildren's compliance and autonomy.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was discussed, as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presented.

주제어(Key Words): 정서 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사회 능력(social competence), 모자 상호작용(mother-child interaction), 정서 사회화(socialization of emotion)

I. 서론

정서는 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 표정, 제스처, 언어적 단서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바꾸는 수단이 됨으로써 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Lewis & Saarni, 1985). 이처럼 정서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회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통제하는 표출 규칙(display rule)을 습득해야 하며 표출 규칙의 습득은 정서 사회화(socialization of emo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Malatesta, Crigoryev, Lamb, Albin, & Culver, 1986; Saarni, 1985). 정서 사회화는 가정, 학교, 이웃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가 아동과의 상호 작용에서 보이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은 주요한 정서 사회화 행동의 하나로 아동의 사회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Gottman, Katz, & Hooven, 1996;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각 개인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적 정서 반응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웃거나 즐거운 표현을 더 활발히 하는 반면, 반응성이 낮은 사람은 기쁜 상황에서도 웃음이나, 흥분, 감탄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에 대해서도 반응성이 높은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 화를 더 잘 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천적 정서성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정서를 표현하는 일반적 패턴인 정서 표현성을 이루게 되며(Cole, Zahn-Waxler, Fox, Usher & Welsh, 1996;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정서 표현성에는 어떤 종류의 정서를 어떤 강도로 얼마만큼 자주 표현하는지가 포함된다(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이처럼 개인의 정서적 특징으로 설명되는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정서 사회화를 다룬 선행 연구들(e.g.,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8)이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을 같은 영역으로 간주하여 다룬 것이 많아 본 연구에서도 사회 능력만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굳이 구별한다면 정서 능력은 정서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정서 이해력, 표현력, 언어 사용 능력, 조절력 등을 말하고 (Denham, 1998; Saarni, 1999) 아동의 사회 능력은 또래 관계나 학교 상황에

서 나타나는 적응 행동을 가리키는데(Booth, Rose-Krasnor, Rubin, 1991) 적응행동에는 또래에 의한 수용도, 인기도, 사교성, 친사회적 행동, 협조성, 순응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서 능력은 사회적 적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들일 뿐 아니라 특히 대인 관계의 상호 작용을 조절하는 정서 조절력은 사회 능력의 지표로 흔히 사용된다. 따라서 사회 능력을 정서 능력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간의 관계는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 경험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흔히 설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방아쇠의 역할을 한다(Bretherton, *et al.*, 1986).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동에게 자주 애정적인 미소를 보이면 아동은 어머니의 미소에 반응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게 되므로 정적 정서의 표현이 빈번한 어머니를 가진 아동이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isenberg *et al.*, 1998; Liable & Thompson, 1998). 또한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애착경험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idy, 1994; Izard, Haynes, Chisholm, & Baak, 1991). 이런 촉발제의 역할은 표현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 혹은 아동이 극심한 화를 낼 때 부모-자녀 사이의 교류가 방해받게 되지만 아동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가 위로나 공감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Zeman, & Shipman, 1996). 다시 말해, 웃음과 슬픔 등은 상대방의 애정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거나 대인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aarni, 1987). 이처럼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아동에게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이 부모와 가지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양을 결정하며 이런 정서적 경험들이 인간관계를 다루어 나가는 사회 능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아동이 사회 능력에 기본이 되는 정서 표출 규칙을 습득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부모의 얼굴 표정, 목소리 등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아동은 어떤 종류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타인이 표현한 정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배운다(Boyum, & Parke, 1995; Cervantes, & Callanan, 1998; Halberstadt *et al.*, 1995). 또한 정서표현을 인식하는 능력과 더불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 상황적 단서에 따라 스스로 정서 표현의 형태와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

기게 되는데(Eisenberg, & Fabes, 1994) 이런 과정을 통해 다소 기질적이고 선천적인 정서 표현성이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정교화 된다. 특히, 직접 관찰한 정서 표현의 모방이 학습의 기제가 되므로 정서를 자주 그리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부모의 아동일수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 표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et al.*, 1998; 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Losoya, Guthrie, & Murphy, 2001). 즉,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아동에게 타인과 사회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정서의 표현, 해석, 조절에 관한 포괄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아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 정서 반응성에 영향을 받으며(Cassidy, 1994; Eisenberg *et al.*, 1993) 이는 역시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기도 하다. 정서 표현성이 높은 부모가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을 낳을 확률이 높으며 더 자유롭게 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부 사이의 정서 표현성의 차이는 아동과 부모, 형제/자매 사이의 정서 표현성에 차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 부모-자녀 사이의 정서적 관계와 아동의 사회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으며 정서의 종류(정적 혹은 부정)에 따라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어머니가 정적 정서를 더 자주 표현 하였을 때 아동은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Denham & Kochanoff, 2002; Denham, Renwick-Debaridi, & Hewes, 1994) 유치원 상황에서 더 뛰어난 행동조절 능력을 보였다. 특히, 행동 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이 전체적인 사회 능력도 높았으며 또래들에게도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Gershoff *et al.*, 2001). 그러나 정적 정서 표현성과는 반대로 부모의 부정 정서 표현성은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정 정서 표현성이 높은 어머니를 가진 아동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과 친사회적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et al.*, 1997; Halberstadt, Fox, & Jones, 1993; Jones, Abbey, & Cumberland, 1998). 또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부정적일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을 때 아동의 정서 조절 전략이 덜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Shipman, & Zeman, 2001) 학교 상황에서 아동의 또래 수용도가 낮고 문제 행동과도 관련이 있었다(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Eisenberg, Liew, & Pidada, 2001). 국내 오영희, 우수경과 김화자(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부정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협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 정서행동에 대해, 몇몇 학자들(e.g.,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et al.*, 1996)은 때때로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 정서 경험이 아동에게 부정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필수적인 사회 기술을 얻게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Robert 와 Strayer(1987)는 부모의 정서 표현 유형이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고 부정적일 때 아동의 사회 능력이 가장 낮아 이러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또래 수용도나 인기도, 협조성이나 행동 조절 능력 등의 사회 능력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수의 연구들(e.g., 이해련, 최보가, 2002; 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8)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 간에 직접적인 관계만을 지지하기 보다는 아동의 정서적 특징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각 변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들어,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사회 능력과 관련성이 있었던 동시에 아동의 정서 능력인 정서표현성 및 이해력(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Denham *et al.*, 1997; Halberstadt, *et al.*, 1993)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고 부정 정서표현성이 낮을수록 아동이 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정서 능력, 아동의 사회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구조나 방향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학자들(e.g.,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6; Saarni, 1999)은 부모의 정서적 특징이 아동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정서 능력은 다시 아동의 사회 능력과 관련된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지만 변인들 간에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Denham *et al.*, 2003)가 보고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과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 능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탐색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표현성외에 아동의 사회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의 정서 표현성을 가정하였다.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다양한 선천적 후천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Saarni(1999)는 아동의 정서 표현성을 정서 능력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정서 표현성이 정서 이해력과 어휘 사용 능력 등 다른 정서 능력과 비슷한 시기에 발달하고 정교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Eisenberg 등(1998)과 같은 연구자들은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이 항상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여 같은 영역으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Demham 등(2003)은 중단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이 별개의 영역이며 둘 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유아기의 정서 표현성은 같은 시기 아동의 사회 능력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아동들이 유치원에 들어간 후 또래에 의한 선호도와 협조성 등의 사회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같은 어떤 변인에 따라서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두 변인간의 영향력을 새롭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사회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선행 연구들을 더 살펴보면,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정서 이해 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이 높았으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더 인기가 있었다(Denham *et al.*, 2003). 또래들은 정서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고 정서 단어 표현이 활발한 아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Fabes, Eisenberg, Hanish, & Spinrad, 2001) 특히, 인기가 높은 아동들은 부적 정서 표현 뿐 아니라 즐거움이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도 강도가 너무 지나치면 다른 아동에게 거부적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Underwood, 1997a). 또한 정적 표현성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 상황에서 덜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남아의 경우에는 어른의 권위에 대한 불순응적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은, 박성연, 2001; 하지영, 박성연, 2005; Denham *et al.*, 2003).

반대로,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을 가진 아동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낮고 또래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aplin, Cole, & Zahn-Waxler, 2005; Eisenberg *et al.*, 1993). 이러한 경향은 남아들에게 더 현저하였는데 부적 정서 표현성의 강도가 높은 아동들은 또래 집단에 끼이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것이 자주 관찰되었으며(Fabes, Hanish, Martin, & Eisenberg, 2002) 이후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plin *et al.*, 2005). Denham 등(2003)이 지적한 대로 아동이 또래들에게 부적 정서를 표현할 때 또래들은 그것을 비우호적이거나 공격적인 신호로 해석하게 되어 쉽게 상호 작용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아동을 또래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아동이 다른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사회 능력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 능력에 대해 부모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각각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가 양방적인(bidirectional) 상호 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정서 표현성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대로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 때 아동도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반대로 부적응적인 정서성을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가 더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을 보였다(송하나, 2006; Cassidy, *et al.*, 1992; Halberstadt, & Eaton, 2002; Halberstadt, *et al.*, 1993).

그러나 이런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의 일치 및 불일치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부모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정적 상관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부모-자녀 유형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데 정서 표현성이 둘 다 높거나 낮은 아동과 부모, 또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아동과 부모들 간에는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다. 정서 표현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기질에 속하는 정서적 반응성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과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한지현, 이영환, 2005; Martini, Root, & Jenkins, 2004; Frodi, Bridges, & Shonk, 1989)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성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쳐 덜 애정적이고 더 통제적인 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이경옥, 허순영, 김영희, 2005). 예를들어, 어머니는 정적 정서 표현이 낮고 아동은 높은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높은 정서 표현성에 반응해 주지 못했을 때 모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거나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정서 표현성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모자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이 아동의 사회 능력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우선, 부모에게서 자녀로 정서 사회화의 일방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부모와 아동의 정서적 표현성 각각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서 표현성의 높고 낮음 외에 부모와 아동이 가진 정서 표현성의 일치도가 모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을 가정하고 일치도와 아동의 사회 능력

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모자 간 정서 표현성의 일치가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0대 어머니 65명과 이들의 자녀인 만 5, 6세 아동 65명이었다. 전체 아동중 남아가 40명, 여아가 25명으로 아동의 전체 평균 연령은 68.62개월(SD=3.68, 범위 62-76개월)이었다. 아동의 성별 연령 평균은 남아가 68.65개월(SD=3.91), 여아가 68.56개월(SD=3.36)로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 아동들은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이었다. 본 연구는 스노우볼 표집 방식으로 소개받은 3개의 유치원에서 106쌍의 어머니와 아동이 일차로 참여하였으나 이후 어머니나 아동이 연구의 진행과정 중간에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자료가 손실된 사례를 제외한 5,6세 아동-어머니 65쌍의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 관찰 상황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사회 능력은 Sogon(1993)이 유치원 아동의 연령에 맞게 열 개의 에피소드로 낯선 상황을 응용하여 재구성한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측정되었다. 실험실은 아동들이 다니는 한 유치원의 빈 교실에 만들어졌는데 예비실험 과정을 통해 관찰 환경 구성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였다.

두꺼운 검은색 커튼으로 교실을 둘러 나누고 실험자가 있어야 할 공간과 피험자들이 있어야 할 관찰 상황을 구분하여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실험실의 한 가운데에는 아동이 가지고 놀 여러 가지 장난감, 좀 떨어진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어야 할 책상과 의자,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장난감을 집어넣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배치되었다. 장난감은 아동의 성에 따라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로봇, 공구놀이, 자동차, 인형의 집, 소꿉놀이 등 성유형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장난감 악기, 컴퓨터 놀이, 모래그림 그리기 등이 골고루 배치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실험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인쇄된 지침서를

책상위에 배치하였다.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아동의 눈에 띄지 않게 커튼의 작은 구멍을 통해 설치되어 2분할 된 화면으로 녹화되었고 마이크는 보이지 않게 천정에 설치되었다.

3. 관찰 절차

본 실험이 시작되기 전 대학원생이거나 박사 연구생인 실험자들과 실험보조자들은 실험 진행과정의 통제와 오류방지를 위해 모든 protocol을 외우고 연습하여 관찰 절차가 중간에 끊김 없이 진행되도록 훈련받았다. 관찰은 아동의 유치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로 오후나 주말에 실시되었다. 실험자와 정한 스케줄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과 같이 실험실을 방문하였으며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는 처음에 아동과 떨어져 혼자 설문지를 할 것과, 그 이후 실험자(실험자 1)의 신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아동에게는 안에서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하였다. 피험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실험상황에 쉽게 적응하도록 실험자가 같이 들어가 공간을 둘러보고 몇 분 동안 가볍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찰 상황은 아동, 어머니, 세 명의 실험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3분 간격의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전 과정은 30분이 소요되었다. 10개의 에피소드들은 5개의 자유놀이 상황과 5개의 과제(task)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과제

〈표 1〉 모자 상호작용의 10개 에피소드

에피소드 번호	과제 설명
1	아동과 어머니가 실험실에서 자리를 잡고 자유놀이를 시작한다.
2	처음에 아동과 만났던 실험자1이 들어와 아동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다른 아동을 위해 장난감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한다.
3	자유놀이
4	아동이 처음보는 낯선1(실험자 2)가 등장하여 아무말 없이 아동 가까이 앉아 있다가 2분후 아동과 대화를 시도한다.
5	자유놀이
6	실험자의 신호에 따라 의자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내려와서 아동과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모자 놀이 상황이다.
7	자유놀이
8	다른 낯선1(실험자 3)가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비롯한 모든 장난감을 빼앗아 구석의 투명한 통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나갔다가 수분 후 다시 돌아와 장난감을 다시 꺼내 준다.
9	자유놀이
10	어머니가 아동에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우라고 요구한다.

들은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 작용 유형,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맨 처음 자유놀이 상황을 시작으로 각 과제 에피소드들의 중간마다 자유놀이 상황이 주어졌다. 각 에피소드들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은 낯선 상황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분리 에피소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대신 장난감을 갑자기 빼앗기는 것으로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구성하였다. 또한 친숙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에피소드 마다 다른 실험자가 낯선이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특히, 장난감을 거둬가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남자 실험자가 낯선이의 역할을 하였다.

4. 행동 코딩

녹화된 관찰 자료들은 두 명의 코더에 의해 각각 20초 간격의 단위(unit)로 나누어 평정되었다. 본 연구의 코더들은 실험 과정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는 아동발달전공 대학원생이었으며 이 코더들의 훈련은 미국의 연구(Fish, 2004)에서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모자 상호작용을 위한 코딩준거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코더들에게 사전에 코딩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세 케이스를 같이 비디오투로 보며 분석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을 마친 후 다른 세 개의 연습 케이스에 대해 각각 따로 분석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각 케이스마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kappa가 .85이상이었다.

정서 표현성 외에 아동의 사회 능력으로 사교성, 스트레스 조절 능력, 순응성, 자율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이 고려되었으며 각 변인의 평정기준과 수준은 Fish(2004)의 모자 상호작용의 코딩 준거를 기초로 국내 상황과 과제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4-1)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은 모자 놀이 상황인 에피소드 6과 치우기 과제인 마지막 에피소드 동안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 작용하며 어떤 정서를 얼마나 표현하는지 평정하였다. 각 20초 단위마다 어머니가 나타내는 정서의 종류와 빈도를 표시하였는데 얼굴표정, 행동, 어투, 억양, 사용된 언어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정적 정서표현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웃음, 미소, 킁킁거림, 흥분 및 칭찬의 감탄사, 애정적인 신체의 접촉 등이 포함되었으며 부적 정서 표현으로는 화와 짜증이 포함되었다. 화는 경고의 어투나 언성을 높이는 것, 얼굴을 찌푸리거나 노려보는 행위를 포함하며 짜증은 실망, 좌절, 슬픔, 지루함 등이 포함된 복합적 정서표현으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동에게 “하지 말랬잖아”하여 가볍게 신경질을 내거나 “제발 빨리하고 가자, 응?” 등의 언급으로 본인의

좌절이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행동이 포함되었다. 또한 20초 한 단위동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정서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중립으로 표시하였다.

아동의 정서 표현성은 전체 열 개 에피소드 동안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같은 준거와 방식으로 정적 정서표현, 부적 정서표현, 중립의 세 영역에 대해 두 명의 코더가 평정하였다. 특히,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은 과제 에피소드 동안 아동이 보이는 분노와 좌절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낯선이가 장난감을 빼앗아 갈 때, 화가 난 표정을 보이거나 언어로 항의하는 것, 얼굴을 찌푸리고 울 것 같은 표정을 보이거나 우울해 하는 것, “저거 가지고 놀면 안돼?” 하며 실망하는 것, 자유놀이 상황에서 “재미없어”라거나 “나가고 싶어”라며 지루해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어머니와 아동의 경우 모두 한 정서 표현이 20초 이상 계속되어 다음 단위(unit)까지 이어졌을 때 단위를 기준으로 각각 다른 빈도로 계산하였으며 정적, 부적 정서별로 빈도를 합하여 개인의 정서 표현성 점수를 구하였다. 훈련받은 두 명의 코더간 일치도는 빈도들의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에 대해 각각 .99와 .93으로 나타났다.

4-2) 아동의 사회 능력

사교성. 아동의 사교성은 처음보는 낯선이(실험자2)와 상호작용하는 에피소드4 동안 아동이 얼마나 낯선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편하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1에서 2까지 네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아동이 낯선이와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방안에 있는 낯선이에게 “누구예요?” 하며 먼저 말을 걸거나 미소를 보이는 행위, 또 낯선이가 대화를 시도했을 때 활발히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점을 주었고, 반대로 낯선이의 등장에 긴장하여 불편해하며 낯선이가 대화를 시도할 때 대꾸하지 않고, 손가락을 빨거나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등의 위축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아동의 사교성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kappa=.89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조절. 아동의 조절 능력은 에피소드8에서 낯선이(실험자3)가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치울 때 얼마나 당황하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이후 장난감을 다시 주었을 때 얼마나 빨리 놀이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하여 0에서 3까지 4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아동이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는 듯 하지만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리어 낯선이가 장난감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거나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보이거나 장난감에 개의치 않고 방 안에서 다른 것을 찾아 탐색을 시작하였을 때, 또한 장난감을 다시 꺼낸 후 아동이 급세 놀이 상황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3점을 주었다. 반대로 낯선이가 장난감을 치우는 것을 보며 화/짜증을

내고 때리거나 치우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보이거나, 반대로 크게 위축되어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 울상을 지으며 움직이지 않고 장난감을 다시 꺼내주었을 때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머니 주위를 맴돌 때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kappa=.84$ 였다.

순응성과 자율성, 아동의 순응성과 자율성은 마지막 장난감 치우기 에피소드에서 엄마가 장난감을 치우라고 요구했을 때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측정되었다. 아동이 거부를 하거나 불평하는 것 없이 엄마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따를 수록 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아동이 “싫어” 등의 언어로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고 화를 내거나 어머니의 요구를 못들은 척 하거나 또는 어머니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놀이를 계속하는 경우 순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0에서 3까지 4수준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자율성의 경우에는 아동이 장난감을 스스로 치우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혼자 다 치웠을 때는 3점, 아동이 거의 다 치웠으나 엄마가 개입하여 도와주었을 때는 2점, 거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치우고 아동이 한두개 치우는 시늉만 했을 때는 1점, 아동은 전혀 치우지 않고 엄마가 다 치웠을 경우 0점을 주었다. 순응성과 자율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둘은 별개의 영역으로 불순응적으로 불평을 하거나 어머니가 여러 번 지적을 할 때라도 결국 아동혼자 다 치우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나서서 치워주는 경우가 있었다. 치우기 과정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아동의 일상적 행동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의존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두 코더가 분석한 순응성과 자율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각각 $kappa=.94$ 와 $.99$ 이었다.

5. 자료 처리

자료 분석과 처리는 변인들 간의 기술치를 제시하고 전체

적인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알아본 후,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사회 능력간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을 정서표현성의 일치도에 따라 4집단으로 구성된 뒤 집단 간 사회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하위 영역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은 남아와 여아의 범주형(categorical) 변인 이었지만 상관 및 회귀 분석에서 0과 1로 더미 코딩하여 연속 변인으로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에는 SPSS version 13이 사용되었다.

III. 결과

1.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사회 능력간의 상관 관계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과 사회 능력의 하위 요소에 대한 평균과 범위,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우선 어머니와 아동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아동의 사교성

〈표 2〉 전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65)		
변인		평균	SD	범위
아동	정적 정서표현성	8.09	5.16	0-21
	부적 정서표현성	3.94	4.08	0-24
	사교성	5.55	4.63	-7-17
	스트레스조절	16.06	3.67	8-24
	순응성	6.75	8.59	0-29
	자율성	10.40	12.86	0-40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	1.46	1.47	0-6
	부적 정서표현성	.58	1.07	0-5

〈표 3〉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65)								
		1	2	3	4	5	6	7	8	9
[아동 변인]										
1.연령		-								
2.성		-.01	-							
3.정적정서표현		-.11	-.05	-						
4.부적정서표현		-.09	.01	.10	-					
5.사교성		-.04	-.39**	.35**	-.08	-				
6.스트레스조절		-.16	-.21	.25*	-.11	.11	-			
7.순응성		.11	.06	.14	-.33**	.02	.03	-		
8.자율성		.09	.05	.08	-.29*	-.03	.05	.96***	-	
[어머니 변인]										
9.정적정서표현		-.07	.16	.16	-.12	-.06	.06	-.04	-.11	-
10.부적정서표현		-.35**	-.23	.21	.44***	.18	-.05	-.30*	-.34**	.08

* $p<.05$, ** $p<.01$, *** $p<.001$

($r=.35, p<.01$) 및 스트레스 조절능력($r=.2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아동의 순응성($r=-.33, p<.01$) 및 자율성($r=-.29, p<.05$)과 부적 상관관이 유의하여 전체적으로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고 부적 정서 표현성이 낮은 아동일수록 높은 사회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성과는 정적인($r=.44, p<.001$), 아동의 순응성($r=-.30, p<.05$) 및 자율성($r=-.34, p<.01$)과는 부적 상관관이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부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도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고 어머니의 요구에 잘 따르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사회능력의 네 하위 요인들 간에는 큰 상호 관련성이 없이 오직 순응성과 자율성만이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r=.96, p<.001$) 이후 분석에서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순응성과 자율성은 같은 과제 에피소드에서 분석되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념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가정하여 모든 분석에서 따로 고려되었다. 그 외에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해, 아동의 연령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r=-.35, p<.01$)과 아동의 성은 사교성($r=-.39, p<.01$)과 각각 부적 상관관이 유의하여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적 정서를 덜 표현한 것을 보여준다.

2.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사회 능력간의 상대적 영향력

2-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4개의 하위 요인별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 능력의 네 개 하위 요인 가운데 아동의 순응성($\beta=-.30, p<.05$)과 자율성($\beta=-.33, p<.01$)이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으며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아동의 사회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이 더 불순응적이고 비자율적임을 보여준다. 두 예측변인을 포함한 회귀 모델은 아동의 자율성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였으나 기타 준거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미비하였다.

2-2)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사회능력의 각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준거 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사교성($\beta=.36, p<.01$)과 스트레스 조절 능력($\beta=.26, p<.05$)은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적 정서

<표 4> 아동의 사회 능력에 대한 어머니 정서 표현성의 영향력

(N=65)

예측변인	준거변인							
	사교성		스트레스 조절		순응성		자율성	
	β	t	β	t	β	t	β	t
어머니 정적정서 표현성	-.07	-.59	.06	.49	-.01	-.12	-.08	-.65
어머니 부적정서 표현성	.182	1.46	-.05	-.40	-.30	-2.45*	-.33	-2.78**
회귀 모델	R ² =.04	F=1.17	R ² =.01	F=.18	R ² =.09	F=3.05	R ² =.12	F=4.25*

* $p<.05$, ** $p<.01$

<표 5> 아동의 사회 능력에 대한 아동의 정서 표현성의 영향력

(N=65)

예측변인	준거변인							
	사교성		스트레스 조절		순응성		자율성	
	β	t	β	t	β	t	β	t
아동 정적정서 표현성	.36	3.08**	.26	2.14*	.17	1.45	.10	.87
아동 부적정서 표현성	-.11	-.94	-.14	-1.13	-.34	-2.88**	-.30	-2.48*
회귀 모델	R ² =.14	F=4.93*	R ² =.08	F=2.73	R ² =.14	F=4.83*	R ² =.09	F=3.28*

* $p<.05$ ** $p<.01$

〈표 6〉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아동의 사회 능력의 영향력

(N=65)

예측변인	준거변인					
	어머니 부적정서 표현성		아동 정적정서 표현성		아동 부적정서 표현성	
	β	t	β	t	β	t
사교성			.33	2.84**		
스트레스 조절			.21	1.82		
순응성	.38	.85			-.62	-1.38
자율성	-.70	-1.58			.30	.68
회귀모델	R ² =.13 F=4.42*		R ² =.17 F=6.33**		R ² =.11 F=3.91*	

*p<.05, **p<.01, ***p<.001

표현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의 순응성($\beta=-.34, p<.01$)과 자율성($\beta=-.30, p<.05$)에 대해서는 정적 정서 표현성 대신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에 따라 사교성과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달라지는 반면, 부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불순응적이고 비자율적인 행위를 더 많이 보임을 제시한다. 두 예측 변인은 사교성, 순응성, 자율성 전체 변량 각각의 14%, 14%, 9% 를 설명했으며 스트레스 조절을 제외하고 각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2-3) 아동의 사회 능력이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정서 행동이 아동의 정서능력을 매개로 사회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아동의 사회 능력이 역으로 정서 능력과 부모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등 다양한 이견들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 능력이 역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 아동의 정적, 부적 정서표현성, 아동의 사회 능력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는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사회 능력과 정서 표현성과의 관계에서 예측변인 전체를 포함한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17%였으나 예측변인 중 오직 사교성만이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을 결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33, p<.01$). 이는 타인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더 많이 보이는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 또한 그 타인에게 더 많은 정적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변인들은 〈표 5〉에서도 정적 정서 표현성에서 사회 능력 방향으로의 설명력이 유의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기타 변인들에 대한 사회 능력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아 아동의 사회능력이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모자간 정서 표현성의 일치가 아동의 사회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 각각의 영향력을 알아본 것에 더하여 본 연구는 모자간의 정서표현성의 일치와 불일치가 아동의 사회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어머니와 아동집단을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 각각에 대해 표현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모자 둘 다 높은 집단과 둘 다 낮은 집단, 어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집단의 4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각 정서별 집단의 분포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정서 표현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결과는 이미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했으며 높고 낮음에 대한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자간 정서 표현성의 일치와 불일치에 더 초점을 두고 일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정서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둘째로, 부적정서에서 아동의 표현성이 낮고 어머니의 표현성이 높은 집단은 6명뿐으로 셀당 너무 적은수의 피험자가 미칠 오류를 고려하여 둘 다 높은 집단, 둘 다 낮은 집단, 표현성이 불일치 하는 집단의 셋으로 구성하였다.

〈표 7〉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 수준 분포

(N=65)

	아동	어머니	명	재구성
정적정서	하 (n=31)	하	17 (26.2%)	
		상	14 (21.5%)	
	상 (n=34)	하	20 (30.8%)	
		상	14 (21.5%)	
부적정서	하 (n=30)	하	24 (36.9%)	24 (36.9%)
		상	6 (9.2%)	
	상 (n=35)	하	19 (29.2%)	25 (38.5%)
		상	16 (24.6%)	

〈표 8〉 사회능력에 대한 정적 정서 표현성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 편차

(N=65)

종속변인	아동 하 어머니 하	아동 하 어머니 상	아동 상 어머니 하	아동 상 어머니 상	F
사교성	3.94 (3.86)	4.71 (2.81)	7.40 (5.76)	5.71 (4.62)	2.00
스트레스조절	14.65 (3.28)	14.57 (2.88)	17.05 (3.56)	17.86 (4.06)	3.60*
순응성	6.53 (7.26)	5.79 (7.99)	8.10 (9.56)	6.07 (9.83)	.25
자율성	12.00 (12.73)	7.14 (10.78)	12.00 (13.11)	9.43 (15.10)	.51

* $p < .05$

3-1) 모자간 정적 정서표현성에서의 일치가 아동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아동의 사회 능력에 대해 정적 정서 표현성의 일치도에 대한 각 집단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60, df=3, 61, p<.05$) LSD사후 검증 결과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자간 정서 표현성이 모두 낮은 집단과 아동의 표현성이 낮고 어머니의 표현성이 높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에 차이가 현저하였다. 즉, 스트레스 조절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의 높고 낮음이나 모자간 정적 정서표현성의 일치도에 관계없이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의 높고 낮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스트레스 조절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정적정서표현성	1	2	3
1. 아동 하/ 어머니 하	-		
2. 아동 하/ 어머니 상	.08	-	
3. 아동 상/ 어머니 하	-2.40*	-2.48*	-
4. 아동 상/ 어머니 상	-3.21*	-3.29*	- .81

* $p < .05$

3-2) 모자간 부적 정서 표현성에서의 일치가 아동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적 정서 표현성과 마찬가지로 부적 정서표현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세 집단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

석으로 검증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사회능력 중 순응성($F=11.12, df=2, 62, p<.001$)과 자율성($F=9.83, df=2, 62, p<.001$)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1〉의 LSD사후 검증 결과 어머니와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둘 다 낮은 집단이 둘 다 높은 집단이나 표현성이 불일치하는 집단보다 순응성과 자율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동 모두 부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집단은 어느 한쪽의 표현성이 낮은 불일치 집단에 비해 순응성과 자율성이 낮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순응성과 자율성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종속변인	부적정서표현성	1	2
순응성	1. 아동 하/ 어머니 하	-	
	2. 아동하/어머니상, 아동상/어머니하	7.85**	-
	3. 아동 상/ 어머니 상	10.40***	2.54
자율성	1. 아동 하/ 어머니 하	-	
	2. 아동하/어머니상, 아동상/어머니하	10.33**	-
	3. 아동 상/ 어머니 상	15.42***	5.09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 능력의 네 가지 하위 요소인 사교성, 스트레스 조절, 순응성, 자율성에 대해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 각각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또 모자

〈표 10〉 사회능력에 대한 부적 정서 표현성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 편차

(N=65)

종속변인	아동 하 어머니 하	아동 하/어머니 상 아동 상/어머니 하	아동 상 어머니 상	F
사교성	5.13 (4.09)	5.48 (4.93)	6.31 (5.11)	.31
스트레스조절	16.13 (3.79)	16.16 (3.51)	15.81 (3.97)	.05
순응성	12.33 (10.68)	4.48 (5.46)	1.94 (3.04)	11.12***
자율성	18.17 (15.10)	7.84 (9.83)	2.75 (5.60)	9.83***

*** $p < .001$

간 정서 표현성 수준의 일치도에 따라 사회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 간의 상대적 관계를 양방적 방향으로 탐색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동 각각의 정서 표현성 뿐 아니라 모자간 정서 표현성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모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 능력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보다는 아동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순응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성의 영향력이 현저하였다. 세 변인들 간에 구체적인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교성 및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 능력이 사회능력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낯선 사람을 포함한 타인에게 더 친밀하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Fabes 등(2001)의 연구에서도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더 관심이 있고 정서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적 표현성과 사교성과의 관계는 양방향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는 또한 타인에게 친밀감을 쉽게 느끼는 경우 정적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후호적인 신호를 전달하여 둘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할 것이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간접적으로 정적 정서 표현이 높은 아동이 또래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연구결과(Denham *et al.*, 2003; Eisenberg, Gershoff *et al.*, 2001)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과 스트레스 조절능력과의 관계는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더 높은 정서 조절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 연구들(Denham *et al.*, 2003; Eisenberg *et al.*, 1998; Underwood, 1997a) 뒷받침 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적 정서 표현성을 가진 아동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정서의 표출 규칙을 더 잘 이해할 때 스스로의 부적 정서 경험도 더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rni(1999)는 정서 표현과 이해를 부적 정서 조절 능력의 선행 요인으로 설명하고 시기적으로도 먼저 발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애착 연구들(e.g., Izard, *et al.*, 1991; Martini *et al.*, 2004)은 아동의 정서성과 정서적 경험의 질이 부모와의 분리로 일어나는 스트레스나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Thompson, 1994; Underwood, 1997b)이 지적한 대로 조절 능력이 풍부한 정서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부적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자간 정서 표현성의 일치도에 따른 네 집단간 차이 검증에서 스트레스 조절 능력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관계없이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성의 높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이 아동에게 정서 경험을 제공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아동의 정적 정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부적 정서 표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순응성은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을 같이 언급한 것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아동이 어머니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 부적 정서 표현성과 사회 능력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순응성이 낮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동이 부적 정서 표현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귀 분석 결과 순응성이 아동이나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Denham 등(2003)은 아동의 부적 정서 표현성의 영향보다 정적 정서 표현성의 영향을 더 많이 보고하였는데 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아동이 교사의 지시에 더 순응적이고 또래들과의 협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행동과 아동의 순응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Denham 등(2003)은 아동이 어떤 규칙이나 권위에 따르려는 경향은 부모나 타인과의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 어렸을 때 생겨나고 그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하지영과 박성연(2005)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거부적이고 덜 반응적일 때 아동이 더 불순응적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이 아동에게 부모와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가질 기회를 제한하고 거부되고 수용되지 못한 느낌을 갖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관련하여 아동이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을 가질 때 부모가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Eisenberg & Fabes, 1994; Prinzie, Onghena, Hellinckx, Grietens, Ghesquiere, & Colpin, 2004). 따라서 아동의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순응적 행동의 동기화에 또한 저해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자율성도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부적 정서 표현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장난감을 스스로 치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아동을 통제하거나 훈육할 때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을 통한 훈육과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우선 여러 학자들은(e.g., Denham *et al.*, 1997; 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et al.*, 1996) 비합리적이고 강도가 높은 부모의 부적 정서 행동이 아동에게 정서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반면, 모자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부적 정서경험은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의 자율성은 청소년기의 자율성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시기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eyers & Goossens, 1999).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떤 합리적인 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적 정서를 표현할 때 아동 스스로 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거나 혹은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지지나 강화를 받는 일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자신이 높은 부적 정서 표현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순응성과 자율성은 모두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각각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의 일치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이 둘 다 낮은 집단은 순응성과 자율성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모자간에 둘 다 부적 정서 표현성이 높은 경우 순응성과 자율성이 가장 낮았으며 정서 표현성 수준이 불일치 하는 집단과의 차이도 유의하였다.

부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에게나 아동에게 모두 정서적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모자간에 이런 요인이 없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이것이 사회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적 정서 표현성에 대한 일치도가 순응성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순응성과 자율성에 대해 부적 정서 표현성의 영향력이 현저하였고 특히 어머니가 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보다 부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는 것이 사회 능력과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북미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들 및 국내 연구(e.g., 오영희 외 2인, 2006; Denham & Kochanoff, 2002; Eisenberg, Gershoff

et al., 2001; Jones *et al.*, 1998)가 사회 능력과 정적 표현성 간에는 정적 관계, 부적 정서 표현성과는 부적 관계를 많이 검증해 내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유사한 결과가 인도네시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Eisenberg, Liew *et al.*, 2001)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적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인기도나 문제 행동을 예측한 반면, 정적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의한 사회화가 타문화권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서구 문화권뿐 아니라 아시아 내 여러 문화권들 간의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후속 연구들을 위한 몇가지 제안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아의 비율이 낮아 정서 표현성과 사회 능력에 대한 성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성은 정서 표현성에 변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적 정서 표현성과 순응성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도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경우가 많았다(하지영, 박성연, 2005; Eisenberg, Fabes *et al.*, 1993). 따라서 정서 사회화 및 정서 능력과 사회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아동과 부모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와 아동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사회 능력간의 관계를 양방향적 측면에서 검증해 보았지만 아동의 정서 표현성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또 다른 패턴으로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차후 개념적 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순응성과 자율성은 개념적으로 분리된 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 둘의 상관성이 높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도 다중공선성 문제와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들은 직접 관찰로 수집된 만큼 설문지와는 달리 맥락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모의 부적 정서 표현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실험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후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관찰이나 구조화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성은, 박성연(2001). 아동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아 아동행동역제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2(2), 29-47.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

- 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치는 영향. *대한가정학지*, 44(1), 75-85.
-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 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학 회집*, 10(1), 149-165.
- 이경옥, 허순영, 김영희(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방식 및 아동의 문제 행동. *놀이치료연구*, 9(2), 1-17.
-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 이해와 부모의 정서 표현성 및 아동 정서 수용 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하지영, 박성연 (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한지현, 이영환(2005).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상황에 따른 모-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87-303
- Beyers, W., & Goossens, L. (1999). Emotional autonomy, psychosocial adjustment, and parenting: interactions,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2, 753-769.
- Booth, C. L., Rose-Krasnor, L., & Rubin, K. H. (1991). Relating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 early attachment security and high-risk statu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63-382.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Cassidy, J. (1994). Emotional regulation: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 (pp.228-249).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40, Vol 59, Nos, 2-3.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C.,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ervantes, C. A., &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 88-98.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 (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5, 1, 80-88.
- Cole, P. M., Zahn-Waxler, C., Fox, N. A., Usher, B. A., & Welsh, J. D.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4, 518-529.
- Denham S.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1, 238-256.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Emotion and the Family*, 34, 311-343.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nham, S. A., Renwick-DeBard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4, 488-508.
- Denham, S., Workman, E., Cole, P., Weissbrod, C., Kendziora, K.,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1, 23-45.
- Den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

- 928-936.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s regul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7*, 4, 475-490.
- Eisenberg, N., Liew, J., & Pidada, S. U. (2001). The relations of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with quality of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Emotion, 1*, 2, 116-136.
- Fabes, R. A., Eisenberg, N., Hanish, L. D., & Spinrad, T. L. (2001). Preschoolers' spontaneous emotion vocabulary: Relations to likability.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1, 11-27.
- Fabes, R. A., Hanish, L. D., Martin, C. L., & Eisenberg, N. (2002).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social isolation: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Merrill-Palmer Quarterly, 48*, 3, 284-307.
- Fish, M. (2004). Attachment in infancy among preschool children in low socioeconomic status rural Appalachian children: stability and change and relations to preschool and kindergarten compet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293-312.
- Frodi, A., Bridges, L., & Shonk, S. (1989). Maternal correlates of infant temperament ratings and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4, 273-289.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Halberstadt, A., Ca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1, 93-103.
- Halberstadt, A.,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the Family, 34*, 1/2, 35-62.
- Halberstadt, A., Fox, N., & Jones, N. A. (1993). Do expressive mothers have expressive children?: the role of socialization in children's affective expression. *Social Development, 2*, 1, 48-65.
- Izard, C. E., Haynes, O. M., Chisholm, G., & Baak, K. (1991). Emotional determinants of infant-mothers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 906-917.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 4, 1209-1222.
- Lewis, M., & Saarni, C. (1985). Culture and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pp.1- 17). New York: Plenum Press.
- Liabie, D. J.,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 1038-1045.
- Malatesta, C. Z., Grigoryev, P., Lamb, C., Albin, M., & Culver, C. (1986). Emotion socialization and expressive development in preterm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7*, 316-330.
- Martini, T. S., Root, C., & Jenkins, J. (2004). Low and middle income mothers'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situational emotional responses. *Social Development, 13*, 4, 515-530.
- Prinz, P., Ongheana, P., Hel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4). Parent and chil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negative disciplin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73-102.

- Roberts, W.,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the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15-422.
- Saarni, C. (1985). Indirect processes in affect socializ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pp. 187-209). New York: Plenum Press.
- Saarni, C. (1987). Cultural rules of emotional experience: A commentary on Miler and Sperry'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3*, 535-540.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Shipman, K., & Zeman, J. (2001).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dyad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317-336.
- Sogon, S. (1993). *The development of affective communication of children and mothers' styles of emotion expression*. Research Report of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Osaka Gakuin University.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 (pp. 25-52).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40, Vol. 59, Nos, 2-3.
- Underwood, M. K. (1997a).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4, 610-634.
- Underwood, M. K. (1997b). Top ten pressing ques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1*, 1, 127-146.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5, 842-849.

(2006년 7월 31일 접수, 2006년 10월 13일 채택)